

# SIMS 내실화 방안 마련 등 中企 정책컨트롤타워 시동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가동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여성기업 활동 촉진계획 등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본격 가동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중기부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박영선 장관이 제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내실화 방안,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및 조정, 2019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의 차관(급)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정부 뿐만 아니라 협·단체에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은숙 한국여성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인협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그리고 산업연구원장과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학계·법조계·금융계 등 전문가들도 두루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 4월25일 열린 첫 정책심의회에선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비롯해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정책심의회에선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관련 안건이 주로 논의됐다.

2015년 구축된 SIMS는 정부의 중소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자금, 연구개발(R&D) 등 9개 사업군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공통 분석대상인 매출, 고용 등 지표 뿐만 아니라 창업(생존율), 자금(이자보상비율 등), R&D(부가가치율 등) 등 사업군별 특색화지표 분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SIMS가 매출이나 고용 등 재무적 지표 중심으로 돼 있어 추가적인 지표 개발 및 성과 분석 항목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비재무적 성과지표나 정부투입지표 등을 보완해 추가 평가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SIMS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관리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 간 온라인연계방식을 지속 확대해나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시스템은 현재까지 36개 기관에 걸친 328개 사업에 대해 온라인으로 연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업수 대비 23.2% 수준으로 미미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연계를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수집대상 지원기업의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8월부터는 국세청의 기업정보를 추가로 활용해 다양한 통계분석도 더해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선 올해의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기부 장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관련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 기업 전용(우대) 프로그램 운영하고, 300억원 규모의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2022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5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편성키로 했다.

또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는 9조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여성기업제품 TV 홈쇼핑 지원도 확대한다.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수축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수축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으로 나가자"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각 부처가 가진 정책수단을 연결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융합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심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부처,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에이스침대 예비부부 혜택 UP... '웨딩멤버스' 확대

에이스침대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에이스 웨딩멤버스'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014년부터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침대와 매트리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에이스 웨딩멤버스'를 마련해 선보이고 있다. 신혼 구매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멤버스'

는 고객 니즈에 맞춘 혜택으로 뜨거운 고객 반응을 이끌어내 2019년 상반기 누적 가입자 5만 명 돌파, 누적 매출 600억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냈다.

에이스침대는 이같은 성원에 힘입어 기존 침대·매트리스 구매 대상으로만 제공하던 구매 금액별 사은품을 슬림케어 제품 구매 금액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

## 휴롬 원액기 최대 50% 보상판매 이벤트

휴롬은 본격적인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휴롬 원액기 보상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휴롬 공식쇼핑몰 '휴롬샵'에서 진행되는 보상판매는 기존에 사용하던 원액기, 블렌더, 믹서기, 녹즙기 등의 사진을 휴롬샵 사진 인증 게시판에 올리면 할인코드가 발급된다. 휴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을 보유한 고객이라도 구입 연도에 관계없이 보상판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원액기는 '휴롬디바'와 '휴



롬 주지아로 에디션'이다. 휴롬디바는 정가에서 35% 할인된 29만9000원, 휴롬 주지아로 에디션은 50% 할인된 25만9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김승호 기자

## 한샘 블랙앤 화이트 부엌 '유로600 시그니처'

한샘은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 콘셉트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부엌 신제품 '유로6000 시그니처'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유로6000 시그니처'는 검정과 흰색의 색상 대비가 돋보이는 제품으로 도시적인 분위기의 부엌을 연출한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가공한 흑니켈 색상 손잡이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부엌에 포인트가 된다.

무광 도어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무광 도어는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지



한샘, 유로6000 시그니처(EURO Signature)

만 한샘은 내구성을 높여주는 '마이크로 엠보코팅' 기법으로 도어를 마감해 지문과 스크래치를 방지한다. /김승호 기자

## 삼성家·LG家·효성家 등 기업인 30여명 배출

# 이병철·구인회 다녔던 지수초 '기업가정신의 메카'로 만든다

중진공, 진주시와 설립·운영 협약 인프라 구축, 일대 테마관광지 개발

삼성家(家), LG가, 효성家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들을 배출한 경남 진주의 옛 지수초등학교가 '기업가정신 메카'로 거듭난다.

지수초등학교의 당시 이름이었던 지수공업보통학교에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 구인회 LG 창업주, 조흥제 효성 창업주 등이 다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진주시와 8일 진주 지수면에 있는 옛 지수초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굴지의 그룹들을 일군 기업인을 배출한 역사를 가진 지수초등학교가 미래기업인들의 정신적 요람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센터가 들어서는 곳



지수초등학교 전경과 교목인 소나무. 이 소나무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구인회 LG 창업주가 재학 당시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주시

은 지수면 승산리에 있는 옛 지수초등학교 자리로 보통학교 시절 이들 창업주가 다녔던 곳이다. 옛 지수초교는 2009년 폐교된 이후 송정초등학교와 통합해 지수면 압사리에 지수초등학교로 재개교,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한국경영학회는 지난해 7월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선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기업인 30여 명을 배출한 옛 지수초교 부지에 기업가정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수면 일대

를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마침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지원 공공기관인 중진공까지 진주에 터를 잡으면서 중진공의 창업지원 노하우까지 접목, 폐교된 지수초교 자리에 3년간 275억원을 들여 1만㎡ 공간에 기업가정신 역사관과 기업가정신 아카데미, 창업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 등을 구축키로 했다.

지수초교는 1921년 개교했다. 이병철 회장, 구인회 회장, 조흥제 회장이 1회 출신이다. 구철회 LG부회장(3회), 허정구 삼양통상 회장(5회) 등도 지수초교를 다녔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과 조규일 진주 시장은 "이번 양자간 협력이 지자체와 중앙정부 이전공공기관간 공동협업 지역산업 우수 모델의 상징이 되길 바라며 옛 지수초교가 미래기업인들의 '정신적 요람'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하우스룩 아워홈에 '조리정수기' 공급 계약

아워홈도 하우스룩 조리정수기를 선택했다. 하우스룩은 최근 아워홈과 조리정수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조리정수기는 인덕션에 정수기를 결합한 컨버전스 가전이다. 정수기와 인덕션 기능과 함께 설정 기능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하우스룩은 2018년 조리정수기를 출시 후 기업 구내 식당과 케이터링 업

체에 공급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삼성 웰스토리에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우스룩 신영석 대표는 "구내식당, 케이터링 업체들은 셀프 조리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공급 매장들의 편의와 고객 지원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할 것"이라 말했다. /김재용 기자



하우스룩은 삼성 웰스토리에 이어 아워홈에도 조리정수기를 공급한다. /하우스룩